

## 기독교계 베스트셀러 서적에 나타난 번역상의 문제점: 『야베스의 기도』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중심으로

장인식  
(중부대)

### 1. 들어가며

번역은 번역하고자 하는 두 언어의 구조적, 의미적, 인지적, 문화적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상응점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과 함께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의 재구성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번역자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원천언어(source language)권 독자의 수준에서 원문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저자가 기대하는 독자의 관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목표언어권 독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번역자가 원문의 독자일 뿐만 아니라 번역문의 저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한/한영 번역의 경우 어순이나 문장 구조, 문법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재구성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번

역에는 언제나 오역의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번역서에 나타난 문제점, 특히 오역 문제를 짚어보기에 앞서 과연 어느 선부터를 오역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영희(2003: 179-80)는 오역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어휘적 관점에서의 오역, 2) 통사적 관점에서의 오역, 3) 지시적 관점에서의 오역, 4) 문화적 관점에서의 오역, 5) 전문적 관점에서의 오역.

본고는 이러한 관점과 첨가와 누락의 관점에서 기독교계 베스트셀러 서적인 두 번역서 『야베스의 기도』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타난 번역상의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도서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장르로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내리고 엄청난 판매 부수<sup>1)</sup>를 기록하며 경이적인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어 번역의 충실도를 확인하고 싶은 지적 호기심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게 될 도서의 원본과 번역본<sup>2)</sup>은 다음과 같다.

- (1) Bruce Wilkinson, *The Prayer of Jabez* (Multnomah Publishers, 2000)  
마영래 역, 『야베스의 기도』 (디모데, 2001)
- (2)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Life* (Zondervan, 2002)  
고성삼 역, 『목적이 이끄는 삶』 (디모데, 2003)

- 
- 1) 번역서 『야베스의 기도』(2001)와 『목적이 이끄는 삶』(2003)은 2005년 7월 현재 각각 200쇄(40만부) 이상을 돌파하는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원서 『야베스의 기도』의 경우 미국에서 출간 12개월만에 500만부를 돌파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기독교 비소설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였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경우 미국 바나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도서로 평가받고 있다(『목회자 신문』, 2005년 6월 29일자).
  - 2) 필자가 참고한 번역본은 『야베스의 기도』(38쇄, 2001년 7월 5일 발행)와 『목적이 이끄는 삶』(40쇄, 2003년 9월 30일 발행)이다.

## 2. 펼치며

### 2.1. 『아베스의 기도』의 경우

#### (1) 어휘적 관점에서의 오류

어휘적 관점에서의 오류란 원문의 단어나 관용어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여기서는 주로 단어와 속어의 뜻을 오역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려운 어휘가 아니어서 원본과의 대조 작업을 소홀히 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사례 1)

원문: Finally Peter relents. When the apostle opens the door, Mr. Jones almost knocks him over in his haste to enter.<sup>3)</sup> It turns out that the enormous building is filled with row after row of shelves, floor to ceiling... (26)

번역문: 결국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졌다. 사도가 문을 열자 존은 급히 들어가려다 거의 자빠질 뻔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이 들어 차 있었다. (39)

원문의 관용구 'knock over'를 번역문에서 '자빠지다'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을 때려눕히다' '~을 쳐서 넘어뜨리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동사인 '자빠지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줄친 부분을 "존은 급히 들어가려다 베드로를 밀쳐 넘어뜨릴 뻔했다"로 해야 한다.

(사례 2)

원문: I stretched as high as I could to reach him and lifted him into my arms. (52)

번역문: 나는 펼쩍 뛰어올라가 데이빗을 팔로 안았다. (81)

원문의 'stretch'는 '(신체나 수족 따위를) 펼다' '(손 따위를) 앞으로 내밀다'

3) 본 논문에 나오는 모든 밑줄과 일련번호는 강조나 비교를 위해, 또 편의상 붙인 것으로 모두 필자의 것이며, 이탤릭체는 원저자의 것임.

의 뜻이지 번역문에서처럼 ‘펼쩍 뛰어 올라가다’의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손을 최대한 높이 뻗어 아이를 잡아내려 품에 안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사례 3)

원문: The woman caught her breath, leaned against the wall, and started to talk.

(80)

번역문: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서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126)

번역자는 원문에 있는 관용구 ‘catch one’s breath’를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숨을 죽이다’ ‘한숨 돌리다’의 뜻인데(Longman 187) 번역문에서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 문맥을 보면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화자(the woman)가 공항에서 이 책의 저자를 만나 심적 고통을 털어놓는 장면인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어떻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그녀’라는 단어 역시 오역은 아니지만 다듬어야 할 표현이다.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다 보니 숲을 못 본 경우이다. 물론 영어 원문을 보면 이 대목(pp. 79-82)에서 ‘she’나 ‘her’가 25번이나 나오는데, 번역자는 많이 줄여 ‘그녀’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말에서 ‘그’ 또는 ‘그녀’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문장은 어색해진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을 “여자는 숨을 돌리며 벽에 기대어 말하기 시작했다”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2) 통사적 관점에서의 오류

통사적 관점에서의 오류란 구와 절, 문장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오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구문과 관련하여 원문 이해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1)

원문: What I have to share with you has been opening up lives to God's mighty working for many years. Recently I was in Dallas to teach on the Jabez blessing to an audience of 9,000. Later over lunch, a

man said to me, "Bruce, I heard you preach the message of Jabez fifteen years ago, and I haven't stopped praying it. The change has been so overwhelming I have just never stopped." (16)

번역문: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사역에 당신의 삶을 열어 놓으라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달라스에서 9,00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야베스가 누린 복에 관한 강의를 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한 사람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15년 전에도 야베스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후 전 그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20-21)

원문에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언급하며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단락을 통해 다양한 실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줄친 부분을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라고) 권유하는 내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 원문의 현재완료 시제(has been opening up)와 부사구(for many years)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삶의 문을 활짝 열도록 했다"로 번역해야 한다.

(사례 2)

원문: Suppose Jabez had been a wife and a mother. Then the prayer might have gone: "Lord, add to my family, favor my key relationships, multiply for Your glory the influence of my household." (32)

번역문: 야베스에게 아내와 어머니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주님, 가족을 더해주시고, 제게 소중한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정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48)

가정법 과거완료의 문장으로 성경의 인물 야베스가 만약 '여자'였다고 가정해 보는 경우이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을 "만일 야베스가 아내나 어머니였다고

가정해보자”로 번역해야 한다. 번역문대로 “야베스에게 아내와 어머니가 있었다고”가 되려면 원문의 동사가 ‘had been’이 아니고 ‘had had’로 되어야 한다.

(사례 3)

원문: Then we watched him turn and head toward the highest slide. Now Darlene was getting nervous. "Bruce, I don't think he should do that by himself. Do you?" (51)

번역문: 잠시 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길은 가장 큰 미끄럼틀 쪽으로 옮겨갔다. 달린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듯 “여보, 혼자 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라고 말했다. (79)

원문에 있는 ‘자각동사+목적어+목적보어’ 구문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한 오역이다. 원문에서는 아이가 몸을 돌려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아이를 바라보던 화자의 눈길이 이동한 것처럼 되어 있다. 물론 시(운문)에서라면 암시적 표현법으로 용납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을 “잠시 후 우리는 아이가 몸을 돌려 가장 높은 미끄럼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사례 4)

원문: Afterwards, your spirit is shouting, *God did that, nobody else! God carried me, gave me the words, gave me the power — and it is wonderful!*

I couldn't recommend more highly living in this supernatural dimension! (53)

번역문: 그런 다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고, 내게 할 말을 주셨으며, 능력을 주셨다. 모든 것이 정말 멋지다!”라고 외치게 된다.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더 이상 어떻게 추천해주어야 할 지 모르겠다!  
(82)

비교급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역이다. 원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러한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을 “이러한 초자연적인 차원의 삶이야말로 내가 추천해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삶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추천해 주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highly’의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례 5)

원문: But Jabez understood what that doomed gladiator didn't: By far our most important strategy for defeating the roaring lion is to stay out of the arena. That's why the final request of his prayer was that God would keep him out of the fight. (63)

번역문: 그러나 야베스는 죽음 앞에 선 검투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순간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경기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기를 기도의 마지막에 요청했다. (98)

원저자는 인용문 바로 앞 단락에서 광고지에 실린 한 검투사를 소개하며 야베스를 그의 모습과 대비시키고 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을 떨어뜨린 채, 다가오는 성난 사자에게 먹힐 운명에 있는 검투사의 모습이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검투사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경기장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사자밥이 되고 말았지만, 성경의 인물 야베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야베스는 죽음을 앞둔 그 검투사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문은 조동사 ‘didn't’와 콜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밑줄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뜻이 통하지 않게 하고 있다. 원문의 ‘stay out of the arena’는 번역문에서처럼 ‘(경기장에 들어갔다) 거기서 벗어나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경기장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

(사례 6)

원문: 1) Without a temptation, we would not sin. Most of us face too many temptations — and therefore sin too often — because we don't ask God to lead us away from temptation. 2) We make a huge spiritual leap forward, therefore, when we began to focus less on beating temptation and more on avoiding it. (68)

번역문: 1) 유혹을 받지 않고도 죄를 짓는 일은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너무 자주 죄를 짓게 된다. 2) 영적으로 크게 도약하고 나면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일에는 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유혹을 받고 도망하는 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106)

번역문의 1)은 원문의 'without'을 조건으로 번역하지 않아 생긴 오류이다. 따라서 “유혹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법이다”로 번역해야 한다. 번역문 2)는 원문의 주절과 종속절을 뒤바꾸어 놓았다. 원문의 주절을 종속절(조건절)로, 종속절(when 이하의 문장)을 주절로 처리함으로써 뜻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유혹을 이기는 데 관심을 쏟는 것보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면에서 큰 진보를 거두게 된다.”

### (3) 번역의 누락

원문의 일부가 번역문에서 아예 빠져버린 경우이다. 번역의 누락은 주로 역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나 때로는 번역자가 옮길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또 뜻을 잘 모를 때 의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번역이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든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례 1)

원문: The little book you're holding is about what happens when ordinary Christians decide to reach for an extraordinary life — which, as it turns out, is exactly the kind God promises. (9)

번역문: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담고 있다. (9)

원문에 있는 대시 이하의 동격 구문을 누락시키고 있다. 원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비범한 삶’(extraordinary life)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종류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었다. 원문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비범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번역문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혜택이란 인상을 준다.

(사례 2)

원문: Because you're reading this book, I believe you share my desire to reach for a life that will be "more honorable" for God. Not that you wish others to reach for less, but for you, nothing but God fullest blessing will do. When you stand before Him to give your accounting, your deepest longing is to hear, "Well done!" (17)

번역문: 이 책을 손에 쥔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영광스러운’ 삶에 도달하고 싶은 심정은 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복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언젠가 지나온 삶을 회계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의 소원처럼, “잘 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21-22)

원문에 있는 한 문장의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인데 아마 구문이 난해하다고 여겨 임의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나 그 결과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줄친 부분 바로 앞 문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열등하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당신의 경우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사례 3)

원문: God's bounty is limited only by us, not by His resources, power, or willingness to give. Jabez was blessed simply because he refused to let any obstacle, person, or opinion loom larger than God's nature. And God's nature is to bless.

His kindness in recording Jabez's story in the Bible is proof that it's not who you are, or what your parents decided for you, or

what you were "fated" to be that counts. What counts is knowing who you want to be and asking for it.

Through a simple, believing prayer, you can change your future.

You can change what happens one minute from now. (29)

번역문: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자원이나 능력이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야베스는 그 어떤 장애도, 그 어떤 사람도 혹은 그 어떤 주장도 하나님의 본성보다 더 크게 확대해 보지 않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43-44)

이 경우는 누락 사례치고 좀 심한 경우다. 원본이 총 92페이지밖에 안 되는 소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분이 제2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된다. 누락된 단락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분은 자상하게도 야베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신분이나 당신에 대한 부모님의 계획, 또 예정된 운명 등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지를 깨닫고 그렇게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바로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이다.”

## 2.2 『목적이 이끄는 삶』<sup>4)</sup>의 경우

이 책의 독특한 특징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그것도 어느 한 역본이 아니라 다양한 영어 성경 역본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약 천여 개의 성경 구절을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15개 종류의 서로 다른 역본을 사용하고 있다. 원저자는 책의 부록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4)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타난 번역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원영희의 「의미의 선명화를 위한 번역 담화상 잉여성의 문제」(『번역학 연구』 5권 1호, 한국번역학회 2004)라는 논문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오역사례라기보다 본서의 제2장에 나오는 소제목과 두 번역문을 중심으로 번역의 잉여성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양한 영어 성경 역본을 이용하고 있다. 첫째는, 번역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모든 역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원래 11,280개의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영어 성경은 약 6,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낱어나 정확한 의미를 놓치지 쉽다. 그래서 항상 여러 역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구절이 갖는 온전한 영향력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번역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 구절들을 여러 번 읽고 들었기 때문에 의미를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구절이 책에서 인용되면 대강 훑고 넘어가 완전한 의미를 놓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의역된 여러 성경 역본들을 이용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기 위함이다. (325 필자 번역)

이러한 원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서 『목적 이끄는 삶』은 심각하고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성경 인용문의 번역면에서는 실패작이다. 저자는 성경 원문의 낱어와 정확한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또 친숙한 성경 구절을 ‘낯설게’ 함으로써 성경 원문이 주는 온전한 충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십여 종이 되는 다양한 의역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서에서는 독자들에게 ‘친숙한’ 한글 개역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간혹 쉬운 성경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 역자가 직접 번역한 번역문과 함께 영어 성경 역본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물론 번역서의 부록에 “한글 성경의 경우, 한글 개역성경을 사용했으며 별도의 경우에는 따로 밝혀두었음”(425)이라고 간략하게 번역 원칙을 밝히고는 있으나, 이런 원칙은 원저자의 성경 인용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원문과 번역문간에 상당한 거리가 생기게 되고 성경을 인용한 저자의 의도가 번역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영어 성경 구절의 의미와 번역서에 나타난 해당 한글 개역성경 구절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맥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의미 전달이 불확실해진다. 특히 천여 개가 되는 성경 인용문의 분량이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영어 성경 역본이 약 20여종이 되는 반면 한글 성경은 4-5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어 역본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충 내용이 비슷한 한글 역본을 선택해 인용한다거나 무조건 개역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여기서는 원저자가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상이한 성경 역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서라도 번역자가 직접 충실하게 번역해주어야 한다. 번역서에 있어서 (한글 개역성경이 아닌) “별도의 경우에는 따로 밝혀두었”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원문의 성경 역본이 같은데도 번역서에서 직접 번역한 것도 있고, 또 한글 개역 성경을 인용한 경우도 있고, 너무 임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영어 성경 구절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문 1) God knew what he was doing from the very beginning. He decided from the outset to shape the lives of those who love him along the same lines as the life of his son.... We see the original and intended shape of our lives there in him. (Romans 8: 29 Msg) (171)

번역문 1)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롬 8: 29) (227)

원문 2) We look at this Son and see God's original purpose in everything created. (Colossians 1: 15 Msg) (171)

번역문 2) 우리는 그의 아들을 보고 모든 창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 (골 1: 15 Msg) (227)

원문에 있는 두 개의 인용문은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성경 역본이 모두 1993년에 출간된 『메시지 성경』(*The Message*)인데, 번역서에서는 1)의 경우 한글 개역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2)의 경우 역자가 직접 번역을 하고 뒤에 역본명을 표기하고 있다. 그 결과 원문의 밑줄친 부분은 번역 성경에서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메시지 성경』이 완전히 의역된 성경으로 원문이 전해주는 메시지의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글 개역성경과는 표현상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원문 제12장(97)에서는 동일한 단락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경 역본(고후 11: 2 *The Message*; 시 29: 9 *New Living Translation*)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앞의 경우 개역성경을 이용하고 있고, 뒤의 경우 역자가 직접 번역하고 있다(131).

#### (1) 전문적 관점에서의 오류

전문적 관점에서의 오류는 번역가의 전문적 지식이나 탐구 부족에서 발생하는 오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번역자가 성경의 역본을 고려치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맥이 파괴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 것이다. 영어 성경, 특히 의역된 성경 역본은 한국 교계에서 널리 쓰이는 개역성경과는 표현상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개역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성경을 인용한 저자의 의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번역문의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심지어 단절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번역 작업은 문맥과의 씨름이라 할 수 있고, 번역의 결과는 언어 구조로 드러난 언어 문맥, 또 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문맥과 모두 맞아야 한다(김정우 125-6). 따라서 번역가는 원문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언어 문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 문맥까지 염두에 두어야 최선의 번역을 달성할 수 있다.

#### (사례 1)

원문: For everything, absolutely everything above and below, visible and invisible,... everything got started in him and finds its purpose in him. (Colossians 1: 16 Msg) (17)

번역문: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 16) (21)

위의 인용문은 본서의 제1장 맨 처음에 나오는 제사(題詞)로 이 책의 주제와 제목(*The Purpose Driven Life*)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다. 따라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뿐 아니라 본서 전체의 흐름과도 직결된다. 'Purpose'란 단어가 들어있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원저자가 본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15종<sup>5)</sup>의 영어 성경 역본 중 오직 『메시지 성경』만이 이 구절에서 ‘purpose’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성경 역본 선택에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번역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목적’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원저자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의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역자는 당연히 『메시지 성경』의 원문에 의거 “만물,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분 안에서 창조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번역했어야 한다.

(사례 2)

원문: God was thinking of you even before he made the world. In fact, that's why he created it! God designed this planet's environment just so we could live in it. We are the focus of his love and the most valuable of all his creation. The Bible says, "God decided to give us life through the word of truth so we might be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 things he made." (James 1: 18 NCV) (24)

번역문: 그분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고 계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구의 환경을 계획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값지다. 성경은 말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약 1: 18) (31)

여기서는 성경 인용문 바로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며 모든 창

---

5) 본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15종의 영어 성경 역본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이고 저자는 특히 의역된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사용된 역본은 다음과 같다. *The Amplified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God's Word Translation, King James Version, Living Bible, The Message, New American Bibl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 Century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Jerusalem Bible, New Living Translat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 by J. B. Phillips, Today's English Version.*

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성경(New Century Version)을 통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원문에서는 앞의 설명과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서에서는 개역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과 성경 구절 사이에 의미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문맥의 흐름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결정하셨다”로 번역해야 한다.

(사례 3)

원문: God smiles when we trust him completely. The second reason Noah pleased God was that he trusted God, even when it didn't make sense. The Bible says, "By faith, Noah built a ship in the middle of dry land. He was warned about something he couldn't see, and acted on what he was told.... As a result, Noah became intimate with God." (Hebrews 11: 7 MSG) (70)

번역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지으신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 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 11:7 쉬운성경) (93)

이 부분은 제9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그중 두 번째 방법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성경의 노아를 들며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한 그를 격찬하며, 『메시지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른 땅 한복판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바로 앞 문장과 내용이 일치한다. 성경을 인용한 저자의 본래 의도가 그대로 살아난다. 그러나 번역서에서는 『메시지 성경』의 번역문이 아닌 『쉬운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바로 앞의 구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란 표현과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번역서에 나타난 한글 성경만 보면 어떻게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지 오히려 이해가 안된다.

## (2) 어휘적 관점에서의 오류

### (사례 1)

원문: Through Crusade staff around the world, the Four Spiritual Laws tract, and the *Jesus* film (seen by over four billion people),... (84)

번역문: 전 세계에 있는 선교회 회원들과 사영리 소책자, 그리고 10억 명이 넘게 본 영화 <예수(Jesus)>를 통해... (112)

원문의 ‘40억’이 번역문에서 ‘10억’으로 바뀌었다. 숫자 오역에 의한 차이가 내용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세계 선교 차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게다가 이러한 오역은 원문의 충실도 면에서 뿐만 아니라 번역서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사례 2)

원문: You may have been passionate about God in the past but you've lost that desire. That was the problem of the Christians in Ephesus — they had left their first love. (98)

번역문: 당신은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 열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크리스천들의 문제였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133)

원문의 ‘에베소’가 번역문에서 ‘라오디게아’로 바뀌었다. 이 내용은 신약성서(요한계시록)에 근거한 것인데, 웬만한 독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읽는 이를 당황케 한다. 게다가 자칫하면 오역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자인 릭 워렌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갖게 할 소지도 있다. 독자들은 번역서를 통해 번역자를 본다고보다 원저자를 보기 때문에 오역은 저자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통사적 관점에서의 오류

(사례 1)

원문: I don't know all the keys to success, but one key to failure is to try to please everyone. Being controlled by the opinions of others is a guaranteed way to miss God's purposes for your life. . . . There are other forces that can drive your life but all lead to the same dead end: unused potential, unnecessary stress, and an unfulfilled life. (29-30)

번역문: 나는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길이다. . . 이 외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많은 다른 힘이 있지만 이 모두가 막다른 골목 즉 사용하지 못하는 잠재력,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삶을 행해 나아가게 한다. (38-39)

위의 인용문은 제3장에서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drive) 다섯 가지 원동력(죄의식, 원함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받으려는 욕구)을 설명하는 대목인데, 맨 마지막 원동력을 언급한 후 이어지는 내용이다. 여기서 저자는 밑줄친 부분을 통해 이 다섯 가지 원동력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원동력들은 인간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따라서 원문에 나오는 콜론(:) 이하의 단어들은 앞에 있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다른 힘들”(other forces)의 구체적인 예로 보아야 한다. “other forces”가 복수인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콜론 이하의 단어들을 “막다른 골목”(dead end)의 예로 처리하고 있다. 구두점으로 인해 오역이 발생한 사례이다. 밑줄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많은 원동력들이 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잠재적 능력, 불필요한 스트레스, 또 충족되지 않은 삶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원동력들은 결국 삶을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한다.”

(사례 2)

원문: Surrendering to God is not passive resignation, fatalism, or an excuse for laziness. It is not accepting the status quo. It may mean the exact opposite: sacrificing your life or suffering in order to change what needs to be changed. (80)

번역문: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념하는 것이나 숙명론적인 것, 또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아니다.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또는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107)

원문에 있는 부정어를 이중 부정으로 처리함으로써 오역이 발생한 경우이다.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 대조만 정확하게 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례이다. 밑줄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

(사례 3)

원문: This doesn't mean you give up on finding a solution. You may need to continue discussing and even debating — but you do it in a spirit of harmony. Reconciliation means you bury the hatchet, not necessarily the issue. (158)

번역문: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조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닌 이미 표면에 떠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213)

번역문을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의미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원문에 있는 관용구와 부분부정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류이다. ‘bury the hatchet’은 ‘싸움을 그만두고 친하게 지내다’의 뜻이며 ‘not necessarily’는 부분부정으로 ‘반드시 ~인 것만은 아니다’의 의미이다. 밑줄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화해는 싸움을 중단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쟁점 자체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4) 문화적 관점에서의 오류

문화적 관점에서의 오류란 언어의 문화적 배경과 관습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역이다. 문화적 지식이란 언어적 지식 위에 사회적, 심리적, 규범적, 철학적 이해는 물론 종교적 이해까지 아우르는 현 언어의 구조적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이해하는 지식이다. 따라서 문장의 통사적, 의미적, 문체적 의미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될 뿐 아니라 원문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원문: However, the problem with a living sacrifice is that it can crawl off the altar, and we often do that. We sing, "Onward, Christian Soldiers" on Sunday, then go AWOL on Monday. (105)

번역문: 하지만 산제물로 사는 것의 문제는 제물이 제단을 떠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전진하라"고 주일에 찬양을 하고 월요일에는 직무 이탈을 한다. (141)

원문의 'Onward, Christian Soldiers'는 찬송가의 제목이고 한국찬송가에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찬송가 389장)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찬송가로,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의 군사로서 세상의 그릇된 풍조와 대결하여 과감하게 싸울 것을 촉구하는 씩씩한 군가풍의 노래이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며 문맥을 살펴보면 원저자가 의도한,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 독자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한다. 영어권 독자들은 원문을 읽을 때 당연히 이 찬송가의 곡조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여 '그리스도의 군사여 전진하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영어 찬송가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없는 독자는 이러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다.

## (5) 번역의 누락

### (사례 1)

원문: Worship has nothing to do with the style or volume or speed of a song. God loves all kinds of music because he invented it all — fast and slow, loud and soft, old and new. You probably don't like it all, but God does! It is offered to God in spirit and truth, it is an act of worship. Christians often disagree over the style of music used in worship, passionately defending their preferred style as the most biblical or God-honoring. But there is no biblical style! There are no musical notes in the Bible; we don't even have the instruments they used in Bible times.

Frankly, the music style you like best says more about *you* — your background and personality — than it does about God. (65-66)

번역문: 예배는 스타일, 음량 혹은 곡의 속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은 노래가 빠르든 느리든, 시끄럽든 조용하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모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좋아하신다. 만약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우리의 배경과 인격에 대해 잘 알려준다. (86)

여기서는 원문의 한 단락(4문장) 전체가 누락되고 있다. 이는 원문의 충실도 면에서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누락된 분량에서 볼 때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문맥의 흐름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번역서에서 모두 누락됨으로써 앞뒤 단락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 원문의 첫째 단락에서는 음악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을, (번역문에서 누락된) 둘째 단락에서는 예배 음악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편견과 그들의 억지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그릇된 견해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 누락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종종 예배 음악의 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만이 가

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한다. 그러나 성경적 스타일의 음악이란 없다! 성경 어디에서도 음표가 등장하지 않고, 당시에 쓰였던 악기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례 2)

원문: A very important test is how you act when you can't feel God's presence in your life. Sometimes God intentionally draws back, and we don't sense his closeness. A king named Hezekiah experienced this test. The Bible says, "*God withdraw from Hezekiah in order to test him and to see what was really in his heart.*" Hezekiah had enjoyed a close fellowship with God... (43)

번역문: 아주 중요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대하 32:31) 히스기야는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왔지만... (58)

원문의 두 문장이 누락되어 문맥이 자연스럽게 못한 경우이다. 저자는 밑줄 친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나 사람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앞의 설명과 인용된 성경 내용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누락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물러나 계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소원(疏遠)해짐을 느낀다.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겪었다.”

(사례 3)

원문: But we are commanded to recognize his glory, honor his glory, declare his glory, praise his glory, reflect his glory, and live for his glory. Why? Because God deserves it! We owe him every honor we can possibly give. Since God made all things, he deserves all the glory. The Bible says, "*You are worthy, O Lord our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everything.*" (54)

번역문: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명령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 4:11) (73)

원문의 세 문장이 누락되어 있다. 저자는 인용문의 첫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말하고,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인용된 성경 구절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누락된 부분에서 의문문과 감탄문을 사용하여 마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며, 확신에 찬 격양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와 감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밑줄 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그분께 돌리게 될 모든 존경도 사실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 (6) 번역의 첨가

번역의 첨가란 원문에 없는 부분이 번역문에 첨가된 현상을 말한다. 번역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해석에 가까운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석의 차원이 아니고 원문에 없는 구절을 역자가 임의로 붙여 넣은 일종의 사족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족은 원본을 망칠 뿐 아니라 원문/저자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다(박경일 22).

원문: God is looking for people like Noah in the twenty-first century — people willing to live for the pleasure of God. The Bible says,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on all mankind to see if there are any who are wise, who want to please God.” (76)

번역문: 하나님은 21세기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삶만이 현명하고 양식 있는 삶의 방식이다. 다른 모든 삶의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

게 말한다. “주님은 누가 현명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  
는지 보시기 위해 항상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시 14:2, LB) (101)

원문에 없는 두 문장을 번역문에서 첨가하고 있는데 첨가된 부분이 내용과  
별 상관 없이 오히려 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도 노아와 같이 자신을 기쁘시게 할 사람을 찾겠다고 말하며 성경 인용문을 통  
해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와 관계도 없는 ‘예배’  
에 관한 구절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다.

### 3. 나오며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문화의 유입이 급증하는 이 때 번역의 중요  
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작가나 학자들이 지식 흡수의 80퍼센트 정도를  
번역서에 의존하고 있으며(안정호 21), 연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국내  
에서 출간된 3만 4,279종의 책 가운데 약 30%가 번역물이라고 한다(원영희  
2003: 368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서의 번역  
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전문번역가의 양성 문제, 또 번역의 질적 평가에 관  
한 한 아직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번역의 평가라 할 수 있는 번역비평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의 번역 문화는 오역으로 얼룩져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베스트셀러  
서적 『야베스의 기도』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다. 『야베스의 기도』에 있어서 오역의 소지가 있는 약간 난해한 구절이나 구  
문도 있지만 대부분 단어나 어휘, 구문, 구두점 등과 같은 단순오역 차원의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충실한 원문 분석이 요청된다. 특히 단어나 문장을 누  
락시킨 사례가 많은데, 한 단락 전체를 누락시킨 경우는 이러한 소책자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번역의 첨가 사례나 지시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문적 관점에서의 오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있어  
서는 전체적으로 지시적 관점에서의 오류를 제외하고 각 영역에서 오역 사례가

등장하는데 번역의 누락 뿐 아니라 첨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 오역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원문에서 반복되는 구문이나 이탤릭체 강조 표현 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약 천여 개나 되는 영어 성경 구절 번역에 있어서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저자의 관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문맥의 흐름이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번역은 정확성이 생명이다. 물론 완벽한 번역은 가능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또 국외의 좋은 텍스트를 선정해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영성 함양에 기여한 번역자의 노고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한 오역 사례들은 번역 과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번역가는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뿐 아니라 문장의 길이나 문체, 또 분위기, 호흡이나 소리까지도 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쉽지 않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책을 출간한 뒤에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점검하여 오역을 바로 잡아야 한다. 번역자가 원문의 원천언어를 거기에 상응하는 목표언어로 재구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번역서를 대하는 독자 또한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접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번역비평으로 인해 원작이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번역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성삼 역. 2003. 『목적이 이끄는 삶』. 서울: 디모데 (Rick Warren.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Grand Rapids: Zondervan).
- 김정우. 2001. 「영·한 번역과 비언어적 문맥의 처리」. 『번역학연구』 2권 2호, 109-128.
- 마영래 역. 2001. 『야베스의 기도』. 서울: 디모데(Bruce Wilkinson. 2000. *The Prayer of Jabez*. Sisters: Multnomah Publishers)
- 박경일. 2001. 「번역문화 바로 세우기와 영어 교육의 근원적 개혁」. 『번역학 연구』 2권 2호, 7-36.

- 안정효. 1996.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 (번역편). 서울: 현암사.
- 원영희. 2003. 『원영희 교수의 일급 번역교실』. 서울: 한언출판사.
- \_\_\_\_\_. 2004. 「의미의 선명화를 위한 번역 담화상 잉여성의 문제」. 『번역학연구』 5권 1호, 113-132.
- 「목회자 신문」 2005년 6월 29일자(<http://www.mokhoeja.com>).
-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 1992).
- Warren, Rick.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Grand Rapids: Zondervan.
- Wilkinson, Bruce. 2000. *The Prayer of Jabez*. Sisters: Multnomah Publishers.

K C I

[Abstract]

**Cases of Mistranslation in Two Christian Bestsellers:  
*The Prayer of Jabez* and *The Purpose Driven Life***

Chang Ein Sik  
(Joongbu University)

This paper assesses two Christian bestsellers, *The Prayer of Jabez* (by Bruce Wilkinson, 2000) and *The Purpose Driven Life* (by Rick Warren, 2002), along with their two Korean versions, the one translated by Mah Young-Rye and the other by Goh Seong-Sam, in order to check and correct several points of mistranslation. The mistranslational cases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areas as Won Young Hee suggests in her textbook of translation, *Top Class for Translation*: 1) the viewpoint of vocabulary, 2) the viewpoint of syntax, 3) the viewpoint of culture, and 4) the viewpoint of professionalism.

In the case of *The Prayer of Jabez*, a few unintelligible phrases and structures are found. But most cases of mistranslation are in simple dimensions such as punctuation mark, vocabulary, and idiom. Therefore a thorough analysis on the original text is requested. There are also some cases of omission. In the case of *The Purpose Driven Life*, it has a serious and important problem. This book contains nearly a thousand quotations from the English Bible. The writer intentionally varies the Bible translation, to give the full impact of familiar Bible verses. He deliberately uses 15 paraphrased translations to help readers see the truth in a new and fresh way. However, the Korean version uses mainly authorized Korean Bible, neglecting the original writer's intention and context.

Translation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in the most strict and accurate

manner so as not to harm any of the complex factors of the source text. The first principle of translation is the correct and exact reproduction of the source text into a new target text.

▶Key Words: version, mistranslation, Bible, omission, addition, vocabulary

장인식

중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전공: 미국문학

관심분야: 비교문학(국문학), 번역비평, 문학과 종교

041-750-6677, 011-689-8910

<http://myhome.naver.com/josephclass>

[ischang@joongbu.ac.kr](mailto:ischang@joongbu.ac.kr)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K C I